

한국의 유네스코 자연성지 잠재자원 현황과 특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유산을 중심으로-

The Status and the Characteristic of Natural Resources in UNESCO Sacred Natural Site, South Korea -Focusing on the Natural Monument Plants-

김효정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Hyo-Jeong Kim(k7w3y4@hanmail.net)

요약

최근 자연성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자연성지란 특정 민족이나 공동체에게 특별한 영적 중요성을 갖는 육상 또는 해상의 구역으로서 정의된다. 본 연구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자연성지에 대한 개념과 가치, 관리원칙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자연성지의 가치를 적용 가능한 국내 천연기념물 식물 식물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국내 천연기념물 식물 중 63건이 이에 해당되었으며, 생물다양성, 문화성, 경관 및 미적 가치와 함께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자연성지의 가치와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향후 우리나라 자연성지 등재 작업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자연성지를 국내 천연기념물 식물 측면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어떻게 관리하고 보전해야 하는지 보여주었다는데 의의를 지니며, 향후 보다 구체적인 실증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중심어** : | 성지 | 문화재 | 당산목 | 당산숲 |

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a increasing interest in Sacred natural sites. Sacred natural sites areas defined as "areas of land or water having special spiritual significance to a specific ethnicity or community. This research studies theoretically about the concept and value, the management principle of Sacred natural sites. In addition, status of the domestic natural monument plants that can applicate the values of the Sacred natural sites were analyzed and its characteristics were scanned. In analysis, 63 natural monument plants could be corresponded also they have biodiversity value, landscape and aesthetic values, cultural values, tour resources values. These are same as the general values of sacred natural sites.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as a basis to register of sacred natural sites in korea. This study has the importance that plant of natural monuments of view point that natural sacred sites out of the importance internationally conditions. A follow-up research is required to ascertain natural sacred sites would getting concertely and practical case study

■ **keyword** : | Sacred Sites | Cultural Heritage | Dangsang Tree | Dangsang Forest |

* 본 연구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천연기념물 식물 입지환경 및 관리개선방안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I. 서론

최근 수십년 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들은 자연보전 노력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대부분 보호지역의 근본적인 목표가 되기도 하였다. 동시에 이 지역들이 국가적, 지역적 경제에 미치는 기여의 정도도 갈수록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 보호지역이란 여가적, 영적, 문화적, 정체성적, 예술적, 미학적, 교육적, 평화적, 치유적인 가치 등 보다 다양한 범위의 가치들을 대변한다[1]. 보호지역 내에 상당수 종교전통과 수많은 민족들에게 신성하게 여겨지는 자연성지들이 분포하고 있음은 보호지역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가치들에 상당한 깊이를 더해준다.

자연성지는 생물적으로 다양한 종이 구성함으로써 생물적 가치가 높고, 자연성지내에서 많은 문화적 활동이 이뤄짐으로써 문화적으로도 가치를 지니며, 잘 보전되어 경관 및 미적으로 뛰어나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성지들은 관광의 명소로 각광받기도 하는 등 자연성지가 지닌 가치는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각박한 생활에 얽매어 있는 사람들은 성지를 방문함으로써 마침내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자신이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은신처에 있다는 느낌은 인간의 정신, 신체, 영혼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자연성지는 접근과 이용의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덕분에 대상지의 상당수는 거의 완전히 자연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교란이 경감되거나 방지되었으며 오랜 기간동안 신중하게 관리가 이루어진 결과 생물다양성은 높게 나타났다.

국내에서 자연성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곳으로는 천연기념물 노거수 중 당산목과 수림지 가운데 마을 숲이 포함될 수 있다.

수십년간 지속적인 인간간섭으로 훼손되어 온 마을 숲은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생태계로 주목받았으며, 잠재자연식생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과 입지의 지표식생자원으로 지역내 생태환경은 인간의 풍수적 생존 조건이었으나, 휴양적·심원적 숲으로 크게 변질되기

도 하였다[2].

현재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마을숲은 농촌사회의 붕괴와 관리 주체의 부재, 개발에 따른 압력으로 마을숲의 형태와 기능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보호지역은 다양한 계획(programme), 협약(convention), 선언(declaration)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을 제정 순서대로 열거하자면, 인간과 생물권 계획(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1970), 람사르협약으로도 잘 알려진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Ramsar Convention) (1971),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 (1972),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2007) 등이 있다. 이 중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은 원주민들의 자연성지를 보호함에 있어 원주민들에게 관리 권한을 더욱 부여하고, 그들과 연관된 전통관행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자연성지와 관련성이 높다.

최근 연구들은 6개 IUCN 관리범주 모두에 걸쳐 자연성지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Dudley et al.[3]에서 수행한 자연성지를 포함하고 있는 보호지역 100개를 대상으로 한 자료 분석 결과를 고찰해 보면, 연구대상 보호지역 중 17%는 세계자연유산 지정지이고, 5%는 람사르습지이며, 3%는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나타내었다.

국내 자연성지 관련 연구는 크게 자연과학적 연구와 인문사회학적 연구로 대별되는데 자연과학적 연구로는 당산목과 당산숲을 중심으로 입지적 특성, 당산목과 당산숲의 식물학적 현황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인문사회학적 연구로는 자연성지의 유래(由來)와 굿 및 제(祭)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자연성지로서의 잠재자원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자연성지 등재 작업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자연성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자연성지의 개념과 역할, 국제협약 및 가치를 살펴보았다. 자연성지를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지침과 원칙을 통해 아직까지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자연성지에 대해 국내 천연기념물 식물을 대상으로 어떠한 대상이 있으며, 특성을 지니는 지 분석해 본다.

III. 결과 및 고찰

1. 자연성지의 이론적 고찰

1.1 자연성지의 개념과 역할

자연성지(SNS : Sacred Natural Sites)란 특정 민족이나 공동체에게 특별한 영적 중요성을 갖는 육상 또는 해상의 구역으로서 정의된다. 전세계의 수 많은 자연성지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있어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자연성지들은 성지의 일종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데 후자의 개념은 특정 민족이나 공동체에게 특별한 영적 중요성을 갖는 구역으로서 정의된다. 성지라는 보다 넓은 범주는 산림과 같이 대체로 자연적인 구역 뿐 아니라 사원과 같이 인공적이거나 기념물적인 구역까지 포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에 의해 지어지거나 기념물적인 속성을 갖는 상당수의 성지들은 그 발생 원인이 된 종교들에서 높은 자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IUCN에서는 그 임부에 부합하도록 주로 자연적인 지역에 초점을 맞추지만, 일반적으로 기념물적인 성지 또는 자연성지 역시 인간문화의 가치있는 요소로서 인정하여 그를 보전하는 노력을 지시한다[4].

자연성지가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하나의 전체론적 관리모델로 통합하는 기능을 하며, 그것이 인류의 유형, 무형 유산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1.2 자연성지와 관련한 국제협약

현재, 자연성지와 관련한 국제협약은 별도로 제정되

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호지역 내 자연성지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인정 및 보존하기 위한 광범위한 체제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한 협약은 세계유산협약¹⁾, 생물다양성협약²⁾, 생활유산³⁾,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⁴⁾으로 볼 수 있다. 생활유산 협약이 발효되고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 반포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기체들 간의 조율된 협력을 도모하여 자연성지와 그 관리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한 기회가 더욱 커지고 있다.

- 1) 세계유산 협약 1972: UNESCO는 이 협약을 통해 인류에게 뛰어난 가치를 갖는 문화적, 자연적 유산의 식별, 보호, 보존을 장려하고자 한다. 184개국이 서명한 세계유산협약은 세계유산 지정지의 지명과 등재를 담당한다. 국제사회 전체는 그 소재지와 무관하게 세계유산 지정지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660개의 세계문화유산지, 166개의 세계자연유산지, 그리고 25개의 복합 세계문화자연유산지가 지정되어 있다. 상당수 세계유산지는 자연성지와 신성경관을 포함하고 있다. 유형유산에 집중하여왔던 세계유산협약은 점점 무형적 가치를 갖는 대상도 인정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 2) 생물다양성협약 1992: 1992년 리오 지구정상회의(Rio Earth Summit)에서 150개국 정부 지도자에 의해 서명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협약은 생물다양성이 단지 동식물, 미생물, 생태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식량안보, 의약품, 청정한 공기, 주거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수요 등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은 전통적 지식과 보호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자연성지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르웨이 구 원주민 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에 의해 전통적으로 점유 또는 사용되어 온 성지 및 육지, 해양 지역에서 이루어 지거나 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안에 대한 문화, 환경, 사회 영향평가를 위한 자발적 지침 (Akwé: Kon Voluntary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Cultural,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regarding Developments Proposed to Take Place on, or which are Likely to Impact on, Sacred Sites and on Lands and Waters Traditionally Occupied or Used by Indigenous or Local Communities)을 작성한 바 있다.
- 3) 생활유산 2003: 2003년 체결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ICH: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또는 생활유산 협약은 구전문학, 공연예술 (전통음악, 무용, 연극 등), 사회적 관행, 의식, 축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행, 전통공예 등의 영역을 다룬다. 이 협약은 따라서 자연성지와 관련된 많은 관행들과 연관을 가지며, 특히 "자연에 대한 지식 및 관행" 영역의 연관성이 크다. 이 협약의 체결 이전에 UNESCO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을 선정하는 계획을 운영하였었는데, 그 일환으로서 자연성지와 관련된 걸작들도 선정되었었다.
- 4)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2007년에 발표된 이 UN 선언문은 (부록 3)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면서 원주민의 지식, 문화, 전통관행에 대한 존중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개발과 환경의 올바른 관리에 기여한다는 사실의 인정하고 있다. Rössler, 2003.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 2004 본협약은 2006년 4월에 발효되었으며, 2007년 12월 현재 87개국이 서명하였다.

2. 자연성지 가치

2.1 생물다양성 가치

자연성지가 지닌 자연보전과 생물다양성 측면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많다. 상당수의 자연성지들은 높은 생물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자연성지들의 생물다양성은 다양한 토지이용으로 인해 서식지에 많은 변화가 있는 주변지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사한 서식지 형태를 나타내는 인근지역에 비해서도 높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5][6].

천연기념물 식물 성지의 경우도 이러한 일반적 성지와 비슷하다. 천연기념물 식물의 경우 크게 점적인 단일목의 노거수와 면적인 특성을 지닌 수림지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러한 노거수와 수림지의 경우 과거부터 지역주민이 신성시하여 가지 하나가 부러져도 손에 대지 않았으며, 만약 만질 경우 부정을 탄다고 전해 내려온다[7]. 이러한 주민들의 믿음이나 전설은 신성한 공간을 보전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지 특성상 최근의 천연기념물 식물 자연성지는 과거에 비하여 주변 환경이 주거단지의 조성, 공장 등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협소화되고 있으며, 자연성지를 자연적으로 방치하기보다는 문화재(천연기념물)로써 보호하고 있다. 초기의 보호는 보호철책을 설치하고 인위적 관리를 지양하여 생물다양성이 많은 반면 최근의 관리는 보호철책을 설치하되 과거와 달리 접근이 양호하게 하며,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생물다양성 측면에서는 개발되거나 훼손된 주변보다는 높지만, 생물다양도에 있어서는 과거와 최근에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지의 유형에 있어서도 점적인 노거수와 면적인 수림지에서 나타나는 지정구역 면적의 차이가 생물다양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자연성지의 생물다양성 가치 측면에서는 관리주체들이 성지를 보호한 결과 특정한 동·식물종이 오직 자연성지에서만 생존하기도 하며 이는 동식물 서식의 근원이 되는 지형, 하천형태 등이 그대로 보호되었기 때문으로 간주한다. 또한, 원주민들이 성지에서 수행하는 영적인 노동과 성지에 대해 갖는 신실한 태도는 성지의 본질적인 성격을 파괴하는 행위

는 절대 하지 않으며, 이에 기인하여 서식지 복원의 측면에서 자연성지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세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연성지들은 서식지 복원을 위한 중요한 교점이자 희귀종의 원천, 보호지역 간 연결고리, 생태회랑, 완충지 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4].

천연기념물 식물 자연성지도 주변 녹지와 연결시켜주는 녹지축이자 중요 생물종의 서식지으로써 자연성지의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점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2.2 경관과 미적 측면의 가치

상당수의 자연성지들은 아름다우며, 이러한 미적 측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지역들에 영적 가치나 권능이 있다고 믿도록 한 요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극적인 경관, 장엄한 석상, 산, 폭포, 고목 등 자연의 모든 측면은 인간에게 영적인 동요를 겪게 할 수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힘은 성지와 신성한 경관을 중요시하는 문화권들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제이다.

천연기념물 식물의 자원가치 평가 중 심미성과 경관 다양성 및 경관변화 감상 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8] 대다수가 높거나 매우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기념물 식물의 경관요소를 보면, 노거수의 경우 오래된 수목이나 큰 수목으로 노거수와 당집, 새 둥지, 돌탑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수림지의 경우도 숲 내에 당산나무, 성황당, 돌탑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 반드시 있다[9][10]고 연구된 바 있다. 특히 일정 면적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수림지의 경우 지정면적이 협소한 노거수에 비하여 폭포, 산, 호수 등 다양한 경관적 요소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관적 미적 가치는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천연기념물 식물의 지정기준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 문화적, 역사적, 경관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지정기준에도 나와 있으며 [표 1]과 같다[11].

2.3 문화적 가치

자연성지는 문화적으로 가치를 지니는데, 이는 성지가 수 많은 토착적, 지역적, 주류적 신앙전통의 일부

표 1. 천연기념물 식물 지정기준

가. 한국 자생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생육지(生育地)
나. 석회암지대사구(砂丘)·동굴·건조자습자하천호수·늪·폭포·온천·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식물군·식물군락 또는 숲
다. 문화민속·관상·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생육지·자생지
라.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
마. 문화·과학·경관·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 명목(名木), 노거수(老巨樹), 기형목(畸形木)
바. 대표적 원시림·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사. 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아.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에 관련된 유용식물(有用植物) 또는 생육지
자.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구성하고 있으므로 수 많은 민족들의 정체성과 관련을 맺고 있고, 중요한 의식적,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천연기념물 식물의 경우도 전통신앙적 행위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당산제 등의 의례행위를 하기도 하며, 지역 공동체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풍물패 공연, 율놀이 등 다양한 토착적 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그 외에도 무속인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발복기원 장소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등 천연기념물 식물이 지닌 문화적 가치도 일반적 자연성지가 지닌 가치와 매우 유사하거나 일치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식물의 문화적 가치와 관련한 인터뷰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지정구역의 범위가 실제보다 확대되어 있고, 인식이 있어서도 수호신으로서 신앙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이러한 전통문화예술의 원형 개발과 발전은 문화적 특수성을 넘어서 세계화를 향한 보편적 글로벌 가치를 재발견하는데도 의의를 지닌다[16].

2.4 관광적 가치

자연성지는 관광적으로 가치를 지니는데, 이는 자연성지가 지닌 종합적 가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연성지가 지닌 생물적 다양성과 이로인해 어우러지는 자연경관의 아름다움 및 성지내에서의 각종 문화적 행위와 문화적 요소 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고 찾아오게 만든다.

앞으로의 관광 상품 개발은 관광자원과 서비스의 단순한 조합에 그치지 않고 이들과 문화, 이미지, 상징을 결합하는 경험상품의 개발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는데[17] 이러한 측면에서 자연성지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관광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축제인데 축제의 일환으로 자연성지내에서의 문화적 활동인 곳, 당산제 등을 찾는 관광객이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테마에 의한 축제의 유형화 연구에 따르면[12] 자연과 인공으로 구분할 때 자연에서는 식물이 가장 큰 평가를 받았으며, 인공에서는 문화와 전통이 축제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한 바 있다. 즉, 자연성지의 축제로서의 가능성은 관광화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당산목에서 행해지고 있는 당산제를 중심으로 한 행사가 지역 고유의 독창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연성지라는 특정한 의미를 지닌 곳에서 행해지는 장소성을 갖고 있으며, 마을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계승되는 점 등이 지역 축제의 브랜드로써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연구된 바 있으며[13]

이는 당산목 뿐만 아니라 마을숲(당산숲) 등에도 확대 적용 가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지는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장소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순례는 어느 종교 어느 민족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있는 현상이었다. 고대로부터 인간들은 신들의 특별한 힘이 있는 곳을 찾아 그곳에서 예배와 감사의 행위를 드렸다. 신성한 장소가

5) 축제(祝祭)는 사전적으로는 '축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 또는 '축하와 제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축제를 의미하는 페스티벌(Festival)은 성일(聖日)을 의미하며 Festivali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써 이는 종교의례(宗敎儀禮)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스러운 존재나 힘과 만날 수 있게 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인 것이다(류정아, 2003).

신들에 의해 선택되었고 특별한 곳으로 인정되었다 [14]. 성지순례는 한 사람이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어떤 거룩한 땅을 찾는 자발적이고 사심 없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15].

또한 잘 보존되어왔기에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물 다양성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곳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장점은 관광동기를 유발하고 관광지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특성이 될 수 있으며, 타 관광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형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18][19].

이처럼 자연성지가 지닌 여러 요소들은 충분히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자연성지의 관리 원칙 및 지침

법적으로 인정된 보호지역에 소재한 자연성지의 관리에 대한 원칙 및 지침을 보면, 6원칙 44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

원칙별 지침을 살펴보면, 제1원칙의 지침 1.1은 자연적, 문화적 가치로서 자연성지가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적,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노력에 있어 필수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지침1.2는 생태계서비스와 인간복지인데, 이것은 자연성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안녕을 위해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과 자연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에는 문화적, 영적 영감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지침1.3은 법적 지위의 인정인데 이는 자연성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정책 시행과 전통관리주체들이 자연성지에 접근하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침 1.4는 협의이며, 1.5는 전체론적 모델이다.

제2원칙의 지침은 공원계획과 자연성지의 파악, 비밀성의 존중, 경계표시와 은폐, 구획, 연결과 복원, 생태계적 접근, 경관적 접근, 개발계획 부문의 인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지원, 보호지역 분류체계와 거버넌스, 국제적 차원이다.

제3원칙의 지침으로는 사전동의, 자발적 참여, 포용, 정통성, 갈등관리의 5개이다.

제4원칙의 지침은 다학제적 접근, 통합연구, 전통적 지식, 네트워크 형성, 소통과 공공인식, 목록작성, 문화재창조, 문화간대화의 8개에 이른다.

제5원칙은 접근성과 가용성, 방문자에 의한 압력요인, 대화와 존중, 관광, 의사결정 통제력, 문화적 사용, 보호, 신성모독과 재신성화, 개발압력, 재정조달의 지침을 가지고 있다.

제6원칙은 제도적분석, 법적보호, 권리기반접근, 권리주체의 권리확정, 토지보유권의 지침을 가지고 있다 [4].

4. 자연성지의 국내현황

앞서 살펴본 IUCN에서 정의한 자연성지의 가치 척도인 생물다양성, 경관과 미적 측면, 문화성, 관광성 등을 국내 천연기념물 식물에 대입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자연성지으로써의 가치를 지니는 천연기념물 식물은 총 지정건수 259건 중(2012.7.30현재) 63건으로 크게 노거수와 수림지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55건, 8건에 이른다.

이들 노거수와 수림지의 특성을 보면, 노거수의 경우 최소 400년 이상으로 추정되며, 수림지는 지정연도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소 갭이 있으나

표 2. 원칙

- 제1 원칙 : 보호지역에 소재하는 자연성지를 법적으로 인정한다.
- 제2원칙 : 보호지역에 소재한 자연성지를 계획과정과 관리프로그램에 통합한다.
- 제3원칙 : 이해당사자들의 동의, 참여, 포용, 협력을 촉진한다.
- 제4원칙 : 자연성지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신장을 장려한다.
- 제5원칙 : 적절한 관리접근성과 가용성을 확보하면서 자연성지를 보호한다.
- 제6원칙 : 국가정책의 적정 체제를 내에서 자연성지 관리주체의 권리를 존중한다.

숲의 조성시기가 400년 이상 된 곳이다. 수령이나 숲 조성시기에 대한 문헌 및 전문가 의견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시간상으로 지금으로부터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 신성한 곳으로 간주한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천연기념물 식물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종의 다양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거수와 수림지가 다양도 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노거수가 지닌 공간(지정면적)의 협소함과 인위적 관리로 인하여 천연기념물 수림지나 일반적 자연성지와는 다르게 다양도가 낮아질 수도 있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문화재로써 문화재 보호협상의 지정구역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들 장소는 현재 당산제가 소멸된 곳도 있으나 대부분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당산제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성한곳임을 증명하는 문화적 행위일 뿐 아니라 자연성지로서 성지순례의 장소나 축제의 장으로 관광화 할 수 있는 이점이 되는 것이다.

오래된 수목이나 숲이 지나는 원시성과 고유성을 지닌 독특한 자연경관은 시나 그림 등 예술적 소재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해 사진촬영 등의 명소가 되기도 한다.

표 3. 천연기념물 식물 중 자연성지 목록

분류	번호	대상문화재	수령/지정시기	당산제 시기
노거수	35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	300년	음 1.15
	36	순천 평중리 이팝나무	400년	-
	39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	500년	1.15
	95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	1000년	음 2.15
	111	진도 삼만리 비자나무	600년	-
	158	울진 죽변리 향나무	500년	음 1.15
	160	제주 산천단 곱술 굴	500-600년	음 1월
	161	제주 성음리 느티나무 및 평나무군	1,000년	4~5월
	174	안동 송사동 소태나무	400년	음 1.15
	185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600년	-
	192	청송 신기동 느티나무	350년	음 1.15
	193	청송 관리 왕버들	년도미상	음 1.14
	212	진도 관매리 후박나무	300년	-
	225	구미 농소리 은행나무	400년	음 10월
	234	양산 신전리 이팝나무	300년	음 1.15
	240	서울 선농단 향나무	500년	모내기철
	247	영풍 태장리 느티나무	600년	음 1.15

270	부산 좌수영성지 곱술	400년	음 1.15	
271	서울 신림동 곱참나무	1000년	음7.1/10.3	
272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	400년	음 1.15	
273	영풍 단촌리 느티나무	700년	음 1.15	
275	안동 사신리 느티나무	600년	음 1.15	
276	남해 갈화리 느티나무	400년	음 10.7	
280	김제 행촌리 느티나무	600년	음 1.3	
281	남원 진기리 느티나무	600년	음 1.3	
283	영암 월곡리 느티나무	516년	음 1.14	
285	영풍 병산리 갈참나무	600년	음 1.15	
288	안동 대곡리 곱참나무	500년	양 8.15	
289	합천 화양리 소나무	500년	음 1.15	
290	괴산 삼송리 소나무	600년	음 1.1	
293	상주 상현리 반송	500년	-	
296	김제 종덕리 왕버들	300년	-	
299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500년	-	
302	의령 새간리 은행나무	600년	음 1.10	
303	화순 아사리 은행나무	500년	음 1.15	
304	강화 불음도 은행나무	800년	-	
305	청원 공북리 울나무	700년	음 5.5	
307	김해 천곡리 이팝나무	500년	5월	
318	월성 옥동리 회화나무	600년	음 1.15	
319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	500년	음 10.1	
320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	800년	음 1.2	
344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	500년	-	
353	서천 신송리 곱술	400년	-	
363	삼척 공촌리 울나무	1,000년	음1.1/5.5	
365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	1,000년	음 5.5	
382	장영 오거리 느티나무	800년	음 1.15	
383	괴산 적석리 소나무	500년	-	
385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800년	-	
396	장수 불덕리 느티나무	500년	음 1.4	
400	예산 갈마리 황목근	500년	음 1.15	
401	청송 홍원리 개오동나무	300년	음 1.15	
406	함양 윤곡리 은행나무	800년	음 1.15	
424	지리산 천년송	500년	음 1.10	
426	문경 대하리 소나무	400년	-	
427	천안 양령리 향나무	1,200년	-	
수림지	28	완도 주도 상록수림	1962.12.7	-
	40	완도 예술리 상록수림	1962.12.7	음 12.31
	93	완성 성남리 성황림	1962.12.7	음4.7/9.9
	136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1962.12.7	음 1.15
	309	부산 구포동 당숲	1982.11.9	음 1.15
	339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1983.8.23	-
	362	고흥 외나로도 상록수림	1989.1.14	음 12.31
404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	1999.4.6	음 1.15	

자연성지 가치요소	천연기념물 식물의 특성
생물 다양성	→ 자연유산의 보존에 따른 다양한 동식물 서식지, 녹지네트워크의 역할
경관 미적 측면	→ 다양한 지형적 요소(폭포, 바위, 수목)로 뛰어난 경관가치 지님. 계절별, 시간별 경관의 다양성
문화적	→ 기복신앙과 제례, 풍물패 놀이 등 전통 문화의 전승 및 당집과 전설의 유래
관광적	→ 사진촬영의 명소, 사글의 소재, 성지순례 장소 등

그림 1. 자연성지의 가치요소와 천연기념물 식물의 특성



그림 2. 천연기념물 식물의 당산제(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그림 3. 천연기념물 식물의 전경(괴산 삼승리 소나무)



그림 4. 세계의 자연성지(호주 울루루 카타추타 국립공원)
출처/네이버 캐스트



그림 5. 세계의 자연성지(과테말라 아티틀란 호수)
출처/네이버 캐스트

IV. 결론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정의한 자연성지의 개념과 역할, 국제협약, 가치 및 관리원칙과 지침을 살펴보고, 자연성지의 잠재력을 지닌 국내 천연기념물 식물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성지(Sacred Natural Sites)란 특정 민족이나 공동체에 특별한 영적 중요성을 갖는 육상 또는 해상의 구역으로 정의되며,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하나의 전체론적 관리모델로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자연성지와 관련한 국제협약은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호지역 내 자연성지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인정 및 보존하기 위한 광범위한 체제들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는 세계유산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생활유산,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이 있다.

셋째, 자연성지는 다양한 가치를 지닌다. 생물다양성가치, 경관과 미적측면의 가치, 문화적가치, 관광적 가치가 있다. 상당수의 자연성지들은 높은 생물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관리주체들이 성지를 보호한 결과 특정한 동·식물종이 오직 자연성지에서만 생존하기도 하며 이는 동식물 서식의 근원이 되는 지형, 하천 형태 등이 그대로 보호되었기 때문으로 간주한다. 경관과 미적측면의 가치에 있어서는 극적인 경관, 장엄한 석상, 산, 폭포, 고목 등 자연의 모든 측면은 인간에게 영적인 동요를 겪게 할 수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힘은 성지와 신성한 경관을 중요시하는 문화권들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제이다. 자연성지는 문화적으로 가치를 지니는데, 이는 성지가 수 많은 토착적, 지역적, 주류적 신앙전통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수 많은 민족들의 정체성과 관련을 맺고 있고, 중요한 의식적,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자연성지는 관광적으로 가치를 지니는데, 이는 자연성지가 지닌 종합적 가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연성지가 지닌 생물적 다양성과 이로인해 어우러지는 자연경관의 아름다움 및 성지내에서의 각종 문화적 행위와 문화적 요소 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고 찾아오게 만든다.

넷째, 법적으로 인정된 보호지역에 소재한 자연성지의 관리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보면, 6원칙 44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자연성지로의 가치를 적용해 본 결과 국내 천연기념물 식물 대상지는 63건으로, 최소 4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노거수이거나 숲의 조성시기가 400년 이상 된 곳이다. 다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을 지니고, 대부분 당산제가 이어져 내려오는 등 문화성을 지닌다. 오래된 수목이나 숲이 지니는 원시성과 고유성을 지닌 독특한 자연경관은 예술적 소재로 이용되며, 명소가 되어 관광화 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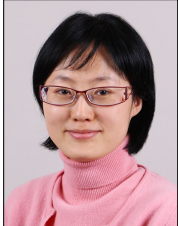
참 고 문 헌

- [1] D. Harmon and A. Putney, *The Full Value of Parks: From Economics to the Intangible*. Lanham, MD, USA: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2003.
- [2] 김종원, “임정철 전통 마을숲에 대한 식물사회학적 고찰”, 한국학논집, 제33권, pp.81-112, 2006.
- [3] N. Dudley, L. Higgins-Zogib, and S. Mansourian, “Beyond Belief, Linking faiths and protected areas to support biodiversity conservation”, A research report by WWF, Equilibrium and The Alliance of Religions and Conservation (ARC). Available at: <http://assets.panda.org/downloads/beyondbelief.pdf> 2005.
- [4] IUCN, *Sacred Natural Sites Guidelines for Protected Area Managers*, 2008.
- [5] P. S. Ramakrishnan, K. G. Saxena, and U. M. Chandrashekhara, (Eds). *Conserving the Sacred for Biodiversity Management*, NewDelhi, India: UNESCO and Oxford and IBH Publishers, 1998.
- [6] P. S. Ramakrishnan, “Conserving the sacred: The protective impulse and the origins of modern protected areas,” In Harmon and Putney, op. cit. 2003.
- [7] 김효정, 이원호, 민호정, “인지지도 분석으로 나타나는 당산목의 마을내 영향권역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9.
- [8]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 식물 입지환경 및 관리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한국칼라, 2011.
- [9] 최재웅, “농어촌 마을 당산숲의 입지 및 구조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논문지”, 제27권, 제1호, pp.35-47, 2009
- [10] 최재웅, “당산숲 구성요소인 돌탑의 기원유래 고찰-안동 서지리 성황당 돌탑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논문지, 제28권, 제3호, pp.98-104, 2010.
- [11] 문화재청, *문화재관계법령집*, 부운디자인, 2011.
- [12] 이회경, 안득수, “향토지역축제 운영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논문지, 제30권, 제1호, pp.103-112, 2012.
- [13] 김효정, 김재웅, “지역축제의 브랜드가치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당산제를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국제심포지엄 논문집, 2012.
- [14] 구본식, *현대가톨릭사상*, 제27호. pp.35-80, 2002.
- [15] R. Oursel. *Vie die Pellegrinaggio e Santuari*, Jack book, 1998.
- [16] 김지원, 류지성, “전통춤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문화예술정책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9호, pp.156-171, 2012.
- [17] 심원섭, *최근 관광트렌드 변화와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18] 류재숙, 임재필, “관광마케팅커뮤니케이션이 관광지 브랜드자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2호, pp.439-452, 2012.
- [19] 김재곤, 송경숙, “축제이벤트에서의 전통향토 음식체험관광에 대한 관광동기가 기대도와 지역에 차 및 관광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0호, pp.434-448, 2011.

저 자 소 개

김 효 정(Hyo-Jeong Kim)

정회원



- 1998년 2월 : 충남대학교 산림자
원학과(농학사)
 - 2002년 2월 : 충남대학교 산림자
원학과(농학석사)
 - 2009년 2월 : 충남대학교 산림자
원학과(농학박사)
 - 2006년 8월 ~ 현재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학
예연구사
- <관심분야> : 문화재, 식물, 천연기념물